

### 고흥군, '제5회 고흥유자축제' 6일 화려한 개막... 첫날 7만 8천 명 몰려

## 유자밭 힐빙가든, 공연·휴식·야간경관까지 한눈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밭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군민과 관람객의 환호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사람향기! 유자천국!' 슬로건 아래, 유자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감성·예술형 힐링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 유자밭은 '유자밭 힐빙가든'으로 꾸며져,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만찬, 야간경관까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 첫날, 총 7만 8천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행사장 곳곳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기가 가득했다. 축제장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더욱 고조됐다.

축제장 입구에는 높이 9m의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축제장 전체는 황금빛 유자 조형물로 가득 차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자라면 시식, 유자청 담기, 유자스파 체험 등을 즐기며 피로를 풀고,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향 속에서 가족·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자밭막사파티도 선보이며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에서는 고흥한우, 삼치회, 서대회, 유자 막걸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맛있고 저렴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음식 체험 공간으로 운영됐다.

또한, 축제장 곳곳의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유자 막걸리, 유자 소르베 등 메뉴를 직접 경험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만찬주로 사용된 고흥 유자로 만든 호랑이유자막걸리 시음 이벤트도 진행돼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야간경관은 지난해보다 한층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됐으며, 올해 새롭게 조성된 유자 전광대에서는 유자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낮과 밤 모두 축제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유자 농가의 길놀이, 유자 천년샘

퍼포먼스 등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현상이 연출됐다.

특히, 개막일 밤에는 김희재, 마이진, 태진아, 성리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 콘서트와 1,000대 드론으로 연출한 드론 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보성군-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논의 농업 인력·문화 교류·정착 기반 강화 기대

보성군은 지난 6일, 베트남 까마우성(Ca Mau) 인민위원회 후인지응웬(Huynh Chi Nguyen) 부위원장과 지방산업부처부·내무부·산업진흥센터 등 관계자 10명이 보성군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와 문화·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교류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만남으로, 까마우성은 보성군의 근로자 지원 체계와 정착 환경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인력 교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보성군을 다시 찾았다.

간담회에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 내 344가구의 다문화가정 중 188가구가 베트남 출신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보성에서 익힌 농업 기술이 귀국 후 베트남 농업 발전

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향후 결혼이민·문화·청년 교류 등 양 지역 간 교류 확대 의지를 전했다.

후인지응웬 부위원장은 보성군에 파견된 근로자 중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없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보성군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까마우성이 농업·수산업 중심 지역으로 보성과 산업 구조가 유사해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까마우성은 올해 한국 9개 지방정부에 총 286명의 근로자를 파견했으며, 보성군은 지난 7월 협약 체결 후 10월에 42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근무 중이다. 이날 대표단은 간담회 후 두 차례 양국 정부 간담회를 통해 양국 정부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송출률 다변화 ▲문화·교육 연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의 대표 쌀 브랜드 '대슬맑은 담양쌀'이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선정돼, 내년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전국 단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담양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담양통합RPC)을 포함한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친환경 쌀 생산 및 납품 관련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선정된 업체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서울시

### 담양 친환경 쌀,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

#### 2026년부터 서울지역 80만 학생의 건강한 밥상 책임져

역 약 8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된다.

담양통합RPC는 서울시 11개 자치구와 제주도 학교급식용 쌀을 납품 중이며, 연간 1,500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등 해외로 200톤을 수출하고, 대기업 협업(CU편의점 도시락 등)을 통해 연간 5,000톤을 납품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며 지역 농업의 든든한

바탕역할을 하고 있다.

'대슬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쌀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진도군, 청년들의 도전! '달달두잇 청춘동아리' 시작

####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달빛 아래 달리고, 함께 만든다!

진도군은 오는 11월 18일(화)부터 12월 18일(목)까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달달두잇 청춘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달빛 아래서 달리고, 함께 만든다(Do-It-Yourself)'라는 의미를 담아, 달리기(러닝) 동아리와 다이아와이(DIY) 동아리, 두 개의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동아리 별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주 2회씩 총 10회 운영된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강의형 교육이 아닌 참여와 소통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고, 자기 계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달달두잇 청춘동아리가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www.jindo.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도군청년센터(☎ 061-542-862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순천시,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 우수 한우 선발·기술 교류의 장으로 순천 한우 우수성 입증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6일 순천 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제41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지역 한우의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개량 성과를 측정하고 우량 한우를 보급해 지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시는 지난해 현대차 사업을 통해 새롭게 스마트 순천가축시장을 개장한 것을 기념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선발된 우량한우 85두와 지난 9월 품평회를 거친 고급육 분야 28두가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순천시는 우량 한우 분야에서 장려상(황전면 서길원), 노력상(낙안면 신초우)을 수상하며 순천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순천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한우농가 간 기술 교류와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기반 조성을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축산 악취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등 다양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 화순군, 2025년 사평면 경로위안잔치 성황리 개최

화순군 사평면(면장 김지연) 7일 사평면 청년회 주관으로 사평초등학교 모후관에서 '2025년 사평면 경로위안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위안잔치에는 사평면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북구 화순군수,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지역 기관 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식전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각종 공연과 흥겨운 노래로 어르신들과 즐기며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기념식에서는 깜짝 이벤트로 사평면

노인회서 90세 이상 선배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겨울 내의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연 사평면장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어르신께 공경의 마음을 표하며, 모든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깜짝 이벤트로 사평면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 싶으면 물어볼 것**

헛갈 같은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기어코 세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한드서 기억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잠시** **우리고**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말**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